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12일]

★ 최근 3개년 학력평가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 실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꾸준히 풀면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y	회차 및 쪽수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01 회-10~29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2	02 회-30~51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3	03 회-52~73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4	04 회-76~95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5	05 회-96~116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6	06 회-117~136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7	07 회-138~157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8	08 회-158~179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9	09 회-180~201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0	10 회-204~223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1	11 회-224~245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2	12 회-246~268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공보윤 경기 성호고등학교
김호진 경기현화고등학교
노준철 경기 서해고등학교
문지혜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이동훈 충북 진천고등학교
이세영 경기 수일고등학교
이수연 경기 수원여자고등학교

이연경 경기 불곡고등학교
조연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용창 경기 심석고등학교
한수연 경기 동탄국제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최신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자이스토리 유튜브 채널

한보람 선생님



[감수진]

강경희 고양 진정성국어학원
강수진 목포 강샘국어
강연구 춘천 페르마 학원
강지수 부산 수수국어학원
곽동훈 서울 곽동훈국어학당
곽은애 서울 (주)압구정명문학원
권은영 울산 시나브로국어논술
금정원 대구 델타학원
기경민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김도연 서울 사과나무학원
김서령 광주 서령국어
김세희 순천 순천금당고등학교
김수련 광주 외와학습코칭센터 진월점
김요셉 서울 대치SEP국어
김정호 군산 김정호국어입시연구소
김지은 청주 올인원스터디랩 입시학원
김태현 인천 연해담국어학원
김휘승 서산 고수학원
문세원 김포 고촌고등학교
박선아 부산 대신이룸학원
박수영 서울 은평대치국어학원
박수인 서울 은평 탐학원

박유빈 세종 너희가꽃이다 입시학원
박유진 화성 파란국어
박정선 서울 가운누리 국어학원
박지현 서울 김종길국어논술학원
박지혜 천안 천안중앙고등학교
박현규 서울 영훈고등학교
배성현 인천 국어논술자신감
배유현 창원 청솔학원
배탐스 안양 삼성학원
송윤정 안양 평촌대신내륙국어학원
양은해 고양 이안익학원
양지은 서울 흐름과제도글쓰는사재국어
오유진 부산 유진아국어 학원
유시준 서울 목동강국어수학과학학원
이가윤 청주 서원고등학교
이기용 연천 연천고등학교
이선영 천안 천안중앙고등학교
이예원 서울 송파지나국어논술학원
이은설 서울 수도여자고등학교
이은영 고양 이은영 국어학원
이태희 광주 울스터디학원
이혜원 부산 청어람학원

임지혜 거제 파스칼에듀학원
장수진 청주 이레 국어교습소
장연희 대구 규장각 국어
전국주 용인 그림중학교
전현주 진주 경성대사대부설고등학교
정민경 아산 가운국어 교습소
정서은 부산 정서은 국어논술
정승호 성남 두각학원
정지연 서울 강동국어교습소
조우현 서울 조지형국어학원
조진희 성남 미래탐구분당고등관
조효숙 광주 첨단 눈높이월계학원
채수만 고양백양고등학교
채혜지 구미 김선일국어학원
최강 전미 담국어논술학원
최복규 서울 기승전국어
최소형 하남 꿈자락국어
최예인 청주 최예인국어
최현애 화성 플랜A입시학원
한재환 안양 JS EDU
황규연 서울 한울국어학원

☘ 차 례

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회 모의고사 - 2023년 3월	10
문법·어휘 완성 TEST	29
2회 모의고사 - 2022년 3월	30
문법·어휘 완성 TEST	51
3회 모의고사 - 2021년 4월	52
문법·어휘 완성 TEST	73
동아리 소개/서울대 TNT	74

III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7회 모의고사 - 2023년 9월	138
문법·어휘 완성 TEST	157
8회 모의고사 - 2022년 9월	158
문법·어휘 완성 TEST	179
9회 모의고사 - 2021년 9월	180
문법·어휘 완성 TEST	201
동아리 소개/고려대 KUAAA	202

II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회 모의고사 - 2023년 6월	76
문법·어휘 완성 TEST	95
5회 모의고사 - 2022년 6월	96
문법·어휘 완성 TEST	116
6회 모의고사 - 2021년 6월	117
문법·어휘 완성 TEST	136

IV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회 모의고사 - 2022년 11월	204
문법·어휘 완성 TEST	223
11회 모의고사 - 2021년 11월	224
문법·어휘 완성 TEST	245
12회 모의고사 - 2020년 11월	246
문법·어휘 완성 TEST	268

어휘 총정리	269
빠른 정답 찾기	273

I 3월 전국연합
1회 [2023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5	131
2	89	125
3	81	117
4	70	107
5	58	95
6	47	84
7	36	74
8	20	63

II 6월 전국연합
4회 [2023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7	136
2	78	127
3	68	116
4	57	105
5	46	94
6	36	84
7	27	74
8	21	68

III 9월 전국연합
7회 [2023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4	135
2	76	127
3	65	116
4	54	105
5	41	93
6	30	82
7	22	74
8	18	70

IV 11월 전국연합
10회 [2022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8	134
2	80	126
3	70	117
4	59	107
5	45	94
6	33	82
7	23	73
8	17	67

2회 [2022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76	136
2	68	125
3	60	115
4	52	104
5	44	94
6	37	85
7	30	76
8	23	66

5회 [2022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1	134
2	83	126
3	73	117
4	62	106
5	49	94
6	37	83
7	26	73
8	20	67

8회 [2022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3	136
2	72	125
3	63	116
4	52	104
5	43	95
6	32	84
7	24	76
8	18	70

11회 [2021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8	134
2	79	126
3	70	117
4	59	106
5	46	94
6	35	83
7	26	74
8	20	68

3회 [2021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0	135
2	72	126
3	63	115
4	55	105
5	46	94
6	38	85
7	30	75
8	22	66

6회 [2021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2	133
2	85	126
3	75	117
4	64	106
5	52	95
6	39	83
7	28	73
8	20	65

9회 [2021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0	133
2	82	126
3	73	117
4	62	107
5	49	95
6	35	82
7	26	73
8	19	67

12회 [2020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1	133
2	83	126
3	73	117
4	61	107
5	47	94
6	33	82
7	23	73
8	18	68

❖ 자신의 점수를 기록하고, 해당 등급에 check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전국 단위로 비교해 보세요.

❖ 등급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수능 1등급을 위한 최고의 실전 모의고사

1 최신 3개년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 12회

최신 3개년 학력평가를 월별로 구분해서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1회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년 3월 23일 시행]

국어 영역

★ 3월 문법시험! 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문항 수: 45개

• 배점: 100점

• 제한 시간: 80분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병풍의 반음은 "ㅁ"과 "ㅂ"을 각각 "ㅁ"과 "ㅂ"으로 발음한다.)

여러분께서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병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아름다움도 느껴 보시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3 최신 3개년 어휘 총정리

이 책에 수록된 지문과 문제의 핵심 어휘를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어휘 총정리에서 뜻을 확인하고 익혀 두면 어휘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Special 어휘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 표시하세요.

1. 어휘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2 언어(문법) · 어휘 완성 TEST

회차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법 개념과 어휘들을 활용하여 추가 문제를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회

문법 · 어휘 완성 TEST

• 문항 수: 4개 • 제한 시간: 5분

01

11~12번 연거 문제

(보기)의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용언이 관용어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어미, 어근이다.

03

14번 연거 문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문장의 주어는: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4 언어(문법) · 독서 문항 동영상 강의 제공

앞으로의 학력평가 ·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 3개년 학력평가 언어(문법) 전 문제와 독서 전 지문과 문제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를 QR 코드로 제공합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QR코드

언어(문법), 독서

동영상 강의

한다. 즉, 기존 글자를 인하여 시중에 유통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통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이 경우 충분한 유통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마치 유통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하여 케인스는 이를 '유통성 함정'이라 불렀다. 그는 이러한 유통성 함정에 빠진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다.

[문학]

<입체 첨삭 해설>

* 시

1 화자, 중심 대상

시의 화자, 중심 대상에 표시했습니다.

2 상황, 정서, 태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비롯해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3 표현상 특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독해 공식

각 갈래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확인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글쓴이

제목의 의미

주제

31~33

(가) 김광균, <성호부근>

1. 화자, 중심 대상

2. 상황, 정서, 태도

3. 표현상 특징

2. 화자, 중심 대상

3. 화자, 중심 대상

4. 화자, 중심 대상

1. 화자, 중심 대상

2. 화자, 중심 대상

3. 화자, 중심 대상

34~37

* 김애란, <도도한 생활>

1. 화자, 중심 대상

2. 상황, 정서, 태도

3. 표현상 특징

2. 화자, 중심 대상

3. 화자, 중심 대상

4. 화자, 중심 대상

1. 화자, 중심 대상

2. 화자, 중심 대상

3. 화자, 중심 대상

* 소설

1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2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3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장면 요약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의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인물 관계도

이것이 핵심!

해당 작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했습니다.

전체 줄거리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제시하여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지문 수록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입체 침삭 해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국어 활용법+α

① 3, 6, 9, 11월별 문제 구성과 학습 전략을 파악!

- 국어 모의고사의 문제 구성을 파악해서 실제 시험에 대비하세요.
- 3, 6, 9, 11월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세워 보세요.



② 학력평가 시험 전에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 3, 6, 9, 11월에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80분 동안 45문항 모의고사를 풀어 보세요.
-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 헛갈리는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보기, 지문을 구조화해서 요약하며 읽기 등 자신만의 문제 접근 방법과 시간 배분 방식을 만들어 나가세요.
- 실제 시험처럼 시작 전 가벼운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지 생각하며 전략을 실행하세요.



③ QR코드로 제공하는 독서·언어(문법) 해설 강의

- 교재에 수록된 모든 독서·언어(문법) 문제의 해설 강의를 QR코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문제의 해설 강의로 연결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 강의를 활용해서 언어(문법)·독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④ 언어(문법)·어휘 완성 TEST로 개념 마무리

- 문제 풀이만으로는 부족한 언어(문법) 개념 정리를 리뷰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므로, 모든 회차를 푼 후에 꼭 언어(문법)·어휘 완성 TEST로 마무리하세요.

⑤ 어휘 총정리

- 국어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는 고난도 문제가 아님에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국어도 모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공부해야 합니다.
- 어휘 총정리에 제시된 어휘 풀이를 활용해 소홀하기 쉬운 국어 어휘 공부도 놓치지 마세요.



⑥ 쉽게 이해되는 압축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맞는지, 틀렸는지 보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맞힌 문제도 해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맞게 이해하고 정답을 고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 지문 근거를 확인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세요.
- '왜 정답'과 '왜 오답', 정답과 오답에 대한 첨삭 해설을 보며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세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회별 45문항, 제한 시간 80분]

★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월 단위로 묶어 최근 연도부터 차례대로 수록하였습니다.

1회 모의고사 — 2023년 시행

2회 모의고사 — 2022년 시행

3회 모의고사 — 2021년 시행

출제 범위 중학교 전 범위

난이도 하: 14~15문항 중: 19~20문항
상: 7~8문항 최상: 3~4문항

문제 구성

- 1~10번: 화법과 작문(10문항)
- 11~15번: 문법(5문항)
- 16~45번: 독서(15문항) + 문학(15문항)

3월 대비 학습 전략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력평가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과 문제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러나 꼼꼼히 지문과 문제를 읽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문제가 많으므로, 지문과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년 3월 23일 시행]

국어 영역

※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문항 수 : 45개

• 배점 : 100점

• 제한 시간 : 80분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근 한 휴대폰 제조사에서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병풍의 특징을 적용한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통 공예품 중 병풍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병풍’은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람을 막는 기능 외에 무엇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소품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병풍은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풍을 펼쳐 공간을 분리하거나,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야외나 다른 공간으로 병풍을 옮겨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었을 때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병풍은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적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병풍에 그림을 넣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를 기원할 때는 십장생을, 선비의 지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사군자를 그린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꽃과 새를 화려하게 그려 넣어 장식함으로써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 이 병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이 병풍은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져 있는 ‘문자도 병풍’입니다. 문자도 병풍은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그린 병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라는 한자와 다양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각 소재들은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잉어를 예로 들자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는 부모님을 위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은 효자의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도 병풍은 집안을 장식하고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병풍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생활용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병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아름다움도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발표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펼치고 접을 수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②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 ③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원하는 바를 그림에 담아 표현하는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하였다.
- ④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⑤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글자와 그림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길 수 있는 병풍의 용도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발표를 듣고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카페에서 전채를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창문을 보았어. 날씨가 나쁠 때는 펼쳐서 외부와 차단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어. 발표 내용을 듣고 그 창문이 공간을 분리하고 확장하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던 병풍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

- 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 소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발표를 듣기 전에 지녔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04~07] (가)는 생태 환경 동아리의 회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회장: 지난 회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캠페인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반려 식물을 키워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반려 식물 모종을 나누어 주고 직접 키워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원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모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부원 1: 예전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 생태 교육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예산으로 반려 식물 모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리 회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쭙어보았더니 선생님께서 그 예산으로 300개 정도의 모종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학생들이 키우기 좋은 반려 식물 세 가지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부원 1: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모종의 수가 우리 학교 학생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부원 2: 그래도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려 식물 키우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모종 300개로도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A]

부원 1: 말씀을 들어 보니 모종 수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동아리 회장: 그런데 캠페인이 모종 나누어 주기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누어 줄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원 1: 좋은 의견이네요.

부원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반려 식물을 더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회장: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와 함께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반려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모종과 함께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부원 2: 좋은 생각입니다. 모종 나누기 행사 전에 안내문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면 캠페인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회장: 그렇네요. 그럼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한 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먼저 반려 식물은 무엇인지, 반려 식물을 키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히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부원 2: 그다음에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고,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 등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부원 1: 하지만 안내문의 제한된 공간에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나누어 주려는 반려 식물이 세 가지나 되는데, 이 세 가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모두 안내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B]

동아리 회장: 음, 각각의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QR 코드로 연결해 두면 어떨까요?

부원 1: 그러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겠네요.

부원 2: 그리고 반려 식물을 키우며 수시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동아리 블로그를 안내해도 좋겠어요.

부원 1: 좋은 의견입니다.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을 뜻하는 '냥집사'처럼, 식물을 키우며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리 회장: 재미있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나)

반려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되어 보세요!

- ▶ 반려 식물이란?
생활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식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 ▶ 반려 식물을 키우면?
생명을 키우는 성취감, 정서 안정, 공기 정화의 효과가 있어요.
- ▶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한다고요?

☞ <3월 23일 하교 시간, 본관 앞>에서,
원하는 모종을 하나씩 나누어 드려요. (300개 한정)

<유칼립투스>



은은한 향기가
주는 마음의 평화

<아이비>



물만 주면
잘 자라는
공기 청정기

<칼라데아>



풍성한 잎이
전하는 싱그러움
생명감

- ▶ 반려 식물은 어떻게 키우나요?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QR 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칼립투스>



<아이비>



<칼라데아>



- ▶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 동아리 블로그(blog.com/eco△△△)를 찾아주세요.

생태 환경 동아리 '푸른누리'

04

(가)의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회의 내용을 환기하며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②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 ③ 서로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0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B]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발화이다.
- ② [A]는 상대의 의견을 보완하는, [B]는 상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발화이다.
- ③ [A]는 상대의 우려를 해소하는, [B]는 상대의 견해에 우려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 ④ [A]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는, [B]는 문제 해결의 결과에 주목하는 발화이다.
- ⑤ [A]는 상대와 자신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B]는 상대와 자신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하는 발화이다.

06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밝히고 있다.
- ② (가)에서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 학생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반려 식물을 키우며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게 돕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동아리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에 따라, (나)의 제목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07

(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신문 자료]

최근 반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반려 동물의 경우 이미 동물 학대, 동물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 식물과 관련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 식물은 반려 동물에 비해 존재감이 미약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고, 버려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 ① 반려 식물을 키우기 쉬운 이유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②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려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반려 동물과 구별되는 반려 식물의 장점을 언급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⑤ 반려 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언급하며 정성을 기울여 반려 식물을 키워 줄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추가해야겠어.

[0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 학급 문집에 신고자 함.

[초고]

우리 집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에는 넓고 작은 배달용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다. 아버지는 이 오토바이를 오랜 친구처럼 여기신다. 틈틈이 먼지를 털고, 경적을 빠방 울리기도 하고, 시동도 부르릉 걸어 보시고, 해진 안장을 툭툭 치며 환하게 웃으신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우리 학교는 인자한 미소를 띤 고목들이 오랜 전통을 말해 준다. 운동장을 발밑에 두고 중고등학교 건물이 다정히 서 있는데, 교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이는 옛 시가지의 한적한 플라타너스 길은 운치가 있고 아름답다.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버지의 등 뒤에 꼭 붙어서 오토바이로 급히 등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서 나를 내려 주셨다. 식당 일로 분주한 아침이지만, 내가 교문에 들어설 때까지 플라타너스 가로수 옆에 서 계시다가 어서 들어가라는 손짓을 보내시고 “부릉부릉 부릉” 소리를 내며 돌아서셨다. 그 소리가 여느 오토바이의 것과는 조금 달라서였을까, 옆을 지나치던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고요와 평안을 할퀴지 않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 때 점심시간이 끝나 갈 무렵 운동장 옆 산책길을 걷다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 오토바이만의 음색이 내 마음속에 반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저쪽 관공서 근처에 배달을 다녀오시나 보다. 매일 한두 번은 학교 교문 앞도 지나시나 보다. 아버지는 이 길을 지나실 때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상상해 보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교문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로 향하는 오르막을 오를 때 들려왔던 그 소리는 웬지 내 어깨를 다독다독하는 인사말처럼 느껴졌다. ‘오후도 즐겁게!’, ‘아빠, 지나간다.’, ‘오늘 화창하구나!’…….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에서 든든한 힘을 얻어서 그런지 내겐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는 상상력이 생긴 것 같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으흠” 헛기침 소리에서 ‘너무 늦었구나. 씻고 일찍 자렴.’ 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된 새봄, 아버지께서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다.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08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며 시작한다.
- ② 의성어를 사용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인상을 부각한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나타낸다.
- ⑤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

09

다음은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을 메모한 것이다. ㄱ~ㄴ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처음

· 넓고 작은 오토바이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아버지 ... ㄱ

• 중간

·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길이 내려다보이는 우리 학교

..... ㄴ

· 오토바이에 나를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셨던 아버지

..... ㄷ

· 학교 산책길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

· 힘든 오토바이 배달로 늘 고단해 하시던 아버지 ㄹ

· 오토바이 소리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나의 상상

• 끝

·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나 ... 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ㄴ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글의 마지막 문장 뒤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을 때 네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추가하고, 비유를 활용한 표현도 있으면 좋겠어.

- ①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서.
- ②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서.
- ③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교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 ④ 교문 앞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을 오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 ⑤ 중학교를 졸업하여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서랍장을 이제는 열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이나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룬다. 가령 ‘먹다’는 어간 ‘먹-’의 뒤에 어미 ‘-고’, ‘-어’가 각각 결합하여 ‘먹고’, ‘먹어’와 같이 활용한다. 그런데 일부 용언에서는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한다. ‘노는’은 어간 ‘놀-’과 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이고, ‘커’는 어간 ‘크-’와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가 탈락한 경우이다.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구분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이며,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가다’의 활용형인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을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활용형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가신다	가-	-시-	-ㄴ-	-다
가겠고			-겠-	-고
가셨던			-었-	-던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된다. 종결 어미는 ‘가신다’의 ‘-다’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이고, 연결 어미는 ‘가겠고’의 ‘-고’와 같이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그리고 전성 어미는 ‘가셨던’의 ‘-던’과 같이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이다. ‘-던’이나 ‘-(으)ㄴ’, ‘-는’, ‘-(으)ㄹ’ 등은 용언이 관형사처럼, ‘-게’, ‘-도록’ 등은 용언이 부사처럼, ‘-(으)ㄴ’, ‘-기’ 등은 용언이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선어말 어미는 높임이나 시제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활용할 때 어말 어미처럼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위에서 ‘가신다’, ‘가셨던’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의 ‘-ㄴ-’, ‘-겠-’, ‘-었-’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각각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②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있다.
- ③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 ④ 어말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⑤ 선어말 어미는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ㄴ의 밑줄 친 부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너도 그를 아니?
 ㄴ. 사과가 맛있구나!
 ㄷ. 산은 높고 강은 깊다.
 ㄹ. 아침에 뜨는 해를 봐.
 ㄴ. 그녀는 과자를 먹었다.

- ① ㄱ: 어간 ‘알-’에 어미 ‘-니’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였다.
- ② ㄴ: 어간 ‘맛있-’에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하여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 ③ ㄷ: 어간 ‘높-’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앞뒤의 말을 연결하고 있다.
- ④ ㄹ: 어간 ‘뜨-’에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용언이 부사처럼 쓰이고 있다.
- ⑤ ㄴ: 어간 ‘먹-’과 어말 어미 ‘-다’ 사이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① (가)의 '앞내에 고기 낚고 뒷피에 약을 캐며' '인생지락'을 느끼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이 '노동의 참된 경지'라는 것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금서일설'을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민이 드러나 있음을, (나)의 '소침됨을 깨닫고' '생활의욕이 급거히 저락되'었다는 것에서 글쓴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민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내 근심 무익한 줄 모르지' 않지만 '천성을 못 변해' '가소롭다'는 것에서 화자가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나)의 '육십 웅'의 '생활의식에 비겨' 보며 '부끄러'워 한 것에서 글쓴이가 타인과 대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의 '강호의 일민이 되야 축성수나 하리라'에서 화자가 은거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의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 없다며 '행의 생활'을 다짐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면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 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쪽 이용자 집단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된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이다.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므로 양쪽 이용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격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가격구조란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가격구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면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에 영향을 받게 된다.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집단에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여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공짜 미끼와 프리미엄(free-mium) 등이 있다. 공짜 미끼 전략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전략은 기본적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그 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3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 회원들과 카드 가맹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 ② 양면시장에서는 신용 카드 회사와 카드 회원 모두가 가맹점의 고객이 된다.
- ③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 ⑤ 프리미엄 전략은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들이 무료 이용자들의 유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9

가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 ② 양쪽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 지불 수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③ 양쪽 이용자 집단에 동일한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다.
- ④ 양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항상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⑤ 플랫폼 사업자가 규모가 큰 이용자 집단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40~41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0번과 41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P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 메신저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했고,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P사와 계약한 ㉡ 광고주들이 크게 늘어났고,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 이후 P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P사는 메신저를 통해 ㉣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유료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P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P사가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 것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짜 미끼 전략이겠군.
- ② P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한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겠군.
- ③ P사가 광고주들에게 부과한 광고 비용과 이모티콘 공급 업체에게 부과한 판매 수수료는 P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에 해당하겠군.
- ④ P사가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한 것은 메신저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주들이 얻는 편익이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P사가 개발한 메신저의 이용자 수가 많아져 이용자들끼리 더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이겠군.

41

다음은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이 ㉡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P사가 무료이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의 수는 (A)하고 ㉡의 효용은 크게 (B)할 것이다. 한편 ㉢이 ㉣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고 가정하면, P사가 ㉢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C)할 것이다.

	A	B	C
①	감소	증가	하락
②	증가	증가	하락
③	감소	증가	상승
④	증가	감소	상승
⑤	감소	감소	하락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계모 장씨는 이성이 왕실의 한 사람이 되어 그 권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늘상 혜랑과 신광 법사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던 차에 이성과 화양 공주가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챈 혜랑이 말하였다.

“이러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혜랑이 해헤해 웃으며 말하였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묘하지 않겠습니까?”

장씨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 다른 꾀를 생각해 보아라.”

혜랑이 신광 법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부인께서 이처럼 약하시니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신광 법사가 말하였다.

“이때가 정말 좋으니 부인은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비밀스럽게 계교를 행하였다.

한편 보모 정 상궁은 이성이 화양 공주를 박대하자 통탄히 여기고 말하였다.

“공주께서는 임금님의 아주 귀한 딸입니다. 더욱이 임금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혼인인데 부마께서 이렇게 매몰차시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화양이 그 말을 듣고는 불을 붙히며 말하였다.

“이 무슨 말인가? 서방님이 드러나게 나를 박대함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불초함을 예로 대한다. 이로 인해 내가 항상 조심하고 있거늘 내가 주인을 원망하며 권세를 운운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말의 기운이 엄숙하니 정 상궁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신발 소리가 나며 이성이 ㉠ 방으로 들어왔다. 화양이 물러 내려서며 이성을 맞은 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성이 화양의 기색을 살펴보니 조금도 방자함이 보이지 않았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조금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화양을 지극히 후대하며 정이 점점 솟아났다. 한밤중 동안 그곳에 있다가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 문안 인사를 정성껏 올렸다.

혜랑은 장씨와 매일 화양을 해칠 계교를 짜는 한편, 신광 법사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되 비밀이 탄로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보냈다. 혜랑의 가르침을 들은 신광 법사는 개용단*으로 이성의 모습을 한 채 ㉡ 명월루에 숨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해지자, 바로 ㉢ 화양 공주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빼어 즉시 화양을 찌르려고 하였다. 때마침 방 밖에 시비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마음이 급해진 신광 법사는 엉겁결에 비껴 찌르고 도망갔다. 비명소리를 들은 시비들이 놀라 들어와 시신이 침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목놓아 울며 말하였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발을 구르고 ㉣ 외당에 사실을 알리며 우왕좌왕하였다.

이성이 미처 나오지 못한 사이에 이영준이 이성을 급히 불렀다. 이성이 나와 보니 명월루에 울음소리가 진동하였다. 시비들은 급히 뜻하지 않은 재앙이 화양의 몸에 미쳤다고 전하였다. 이성은 크게 놀라면서도 얼굴빛을 태연히 하였다. 이성이 화양을 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영준은 보자마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이성이 정당에 있었다고 답하자, 이영준은 장씨를 의심하면서도 여러 시녀들이 이성이 찔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정신없이 이성과 함께 명월루로 갔다. 시비들이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영준과 이성을 보고 놀랐다. 이영준이 휘장 밖에 서서는 이성에게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화양은 침상 아래 거꾸러진 채로 유헤이 낭자하니 그 모습이 매우 잔혹하였다. 왕실의 금지옥엽으로 이런 일을 당하였고, 그 누명이 이성에게 미칠 수 있으니 어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 공주를 살폈다. 두 눈이 감긴 채 두 뺨에는 혈기가 없고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 방도가 전혀 없어 보였으나 비단 저고리를 걷고 자세히 보니 눈같이 흰 피부에 붉은 피가 가득하되 약간의 생기가 있었다. 주머니에서 침을 내어 기를 통하게 할 곳을 짚어 찔렀다. 이성의 침법이 원래 신이하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붉은빛이 통하고 생기가 돌았다. 약을 주자 잠시 후 화양이 숨을 쉬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중략 줄거리]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던 이성은 외적이 쳐들어오자 풀려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벗는다.

그때 사신이 이르렀다는 전갈이 오자 이영준이 이상하게 여겨 즉시 당에서 내려가 임금의 교지를 받았다. 보니 장씨의 허물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다. 궁궐에서 자기 집의 허물이 드러나 모든 관리에게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 부끄러운 한편 장씨의 심술에 통분하였다. 이에 노비를 호령하여 장씨를 모시던 시녀와 유모 혜랑을 잡아들이게 한 후 실상을 파헤쳤다. 혜랑이 비록 크게 간악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처음에 자객을 보내어 이성을 해하려고 한 일부러 화양을 해쳐 그 죄를 이성에게 뒤집어씌운 일까지 바로 자백하였다.

‘장씨가 마음이 좁은 여자여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간교함이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너의 간악한 꾀로 명공의 집안에 화란을 짓고, 요악한 도사와 결탁하여 그 화가 국가에까지 미쳤다. 또한 너의 주인을 아주 못된 아녀자로 만들었으니 어찌 죽음을 면하겠느냐?”

말을 마치고는 노비를 명하여 지저 죽이는 형벌을 더해 죽였다. 장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아 ㉤ 후원 냉옥에 가두었다가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린 후 다시 처치하고자 하였다. 이때 장씨는 자기 허물이 온 나라에 시끄럽게 드러나자 크게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멀리하였다.

한편 열한 살인 이무는 모든 일에 어른처럼 노련하였다. 이 일을 당하니 마치 벼락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하였다. 어머니 장씨의 허물이 이처럼 심한 것에 새롭게 놀라며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죄를 받은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목숨을 유지하다가 아버지 이영준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이성과 함께 나아가 울며 말하였다.

“소자들은 천륜의 죄인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아버님께서 어머니의 망극한 죄를 더하지 마시어 불초한 저희들로 하여금 만고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을 하며 눈물을 비처럼 흘리니 그 효성스러운 거동이 사람의 분한 마음을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

— 작자 미상, 《화산기봉(華山奇逢)》

* 개용단: 마음 먹은 대로 모습을 바꿔 주는 묘약

* 멸문지화: 한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

4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영준은 직접 화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성을 의심했다.
- ② 장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 ③ 이영준은 혜랑이 자백하는 척하며 장씨를 모함한 것을 꾸짖었다.
- ④ 이성은 화양이 습격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 ⑤ 혜랑은 이성과 화양의 불화가 자신의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③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성이 화양의 태도를 확인하고 화양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곳이다.
- ② ㉡은 신광 법사가 혜랑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한 곳이다.
- ③ ㉢은 신광 법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조금씩 행동하는 곳이다.
- ④ ㉣은 이영준과 이성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곳이다.
- ⑤ ㉤은 장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이영준에 의해 보내진 곳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화산기봉》에서 주인공의 혼인은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해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초래되지만,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대응한다. 한편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가족 외 인물은 갈등 유발의 책임이 전가되어 처벌되는 반면, 가족 내 인물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포용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가문의 안정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장씨가 왕실의 사람이 된 이성을 경계하여 계교를 꾸미는 것을 보니, 주인공의 혼인으로 인해 계모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화양이 이성을 원망하는 정 상궁을 질책하는 것을 보니,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 인물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장씨와 혜랑에 의해 이성이 누명을 쓰는 일이 멸문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니,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가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이성이 신이한 침술로 목숨이 위태로운 화양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니,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통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무와 이성이 장씨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니, 효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인물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01 _ 11~12번 연계 문제

〈보기〉의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미는 단어 속 위치에 따라 용언의 끝에 쓰이는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에는 문장을 마무리하는 종결 어미와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 그리고 용언을 마치 다른 품사처럼 쓰이도록 하는 전성 어미가 있다. 또 선어말 어미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등이 있다.

- ㄱ. 선생님께서 언제 오시니?
 ㄴ. 어제 읽었던 책이 생각난다.
 ㄷ. 날이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다.

- ① ㄱ: 어간 ‘오-’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와 종결 어미 ‘-니’가 결합하였다.
 ② ㄴ: 어간 ‘읽-’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과 연결 어미 ‘-던’이 결합하였다.
 ③ ㄴ: 어간 ‘생각나-’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였다.
 ④ ㄷ: 어간 ‘흐리-’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앞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⑤ ㄷ: 어간 ‘내리-’에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하여 관형사처럼 쓰이게 하고 있다.

02 _ 13번 연계 문제

〈보기〉의 [A]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는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이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소 대립쌍 ‘낮’과 ‘[A]’는 [ㅈ]과 [ㄴ]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므로 ‘ㅈ’과 ‘ㄴ’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 ① 남 ② 날 ③ 난 ④ 잔 ⑤ 잠

03 _ 14번 연계 문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문장의 중의성: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 중의성 해소 방법: 어순 변경, 삽입나 조사 추가, 상황 설명 추가 등
- 중의성 해소하기
 - 상냥한 친구의 동생을 보았다.
 - 친구의 상냥한 동생을 보았다.
 - 상냥한 친구의, 동생을 보았다.
 - 나는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
 - 나는 숙제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 나는 숙제를 다는 하지 못했다.
- 진희가 철수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진희가 혼자서 철수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진희가 철수와 둘이서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① ㄱ-1은 ‘친구의 동생’이 상냥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어순을 변경하였다.
 ② ㄱ-2는 ‘친구’가 상냥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삽입을 추가하였다.
 ③ ㄴ-1은 숙제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추가하였다.
 ④ ㄴ-2는 숙제의 일부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조사를 추가하였다.
 ⑤ ㄷ-1은 ‘진희’와 ‘철수’가 같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추가하였다.

04 _ 19~22번 연계 문제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 ① 허생은 드디어 관직에 올랐다.
 ② 이야기를 듣고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③ 산 정상에 오르면 성취감이 느껴진다.
 ④ 작년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⑤ 삼시간에 불길이 올라서 옆집까지 옮겨붙었다.



어휘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헷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ㄱ

- ㄱ **가상**[假 거짓 가 像 모양 상]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
예 이 영화는 **가상**의 세계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 ㄱ **감상**[鑑 거울 감 賞 상줄 상]하다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다.
예 미술관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를 **감상**했다.
- ㄱ **강요**[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하다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다.
예 모든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
- ㄱ **개방**[開 열 개 放 놓을 방]하다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하다.
예 방학 중에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ㄱ **개선**[改 고칠 개 善 착할 선]되다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다.
예 도서관에 에어컨이 새로 설치되면서 학습 환경이 **개선**되었다.
- ㄱ **결부**[結 맺을 결 付 줄 부]되다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연관되다.
예 주변 환경과 범죄 발생률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 ㄱ **경향**[傾 기울 경 向 방향 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예 그 작가의 신작은 예전의 작품과는 달리 상업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 ㄱ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심상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후각화)
- 한운운, <님의 침묵>
- ㄱ **관련**[關 빗장 관 聯 잇닿을 련]하다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다.
예 이번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ㄱ **괴다**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예 균형이 맞지 않는 의자 다리 밑에 종이를 접어 **괴어** 놓았다.
- ㄱ **구사**[驅 몰 구 使 부릴 사]하다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
예 그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 ㄱ **구체화**[具 갖추 구 體 몸 체 化 될 화]하다
구체적인 것으로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예 회의를 통해 다음 일정을 **구체화**했다.
- ㄱ **국한**[局 관 국 限 한계 한]하다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하다.
예 구매 후보지를 같은 지역 내의 업체로 **국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 ㄱ **기민**[機 틀 기 敏 민첩할 민]하다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다.
예 나와 동생 사이의 긴장을 눈치챈 엄마는 **기민**한 움직임으로 방을 나가셨다.
- ㄱ **기반**[基 터 기 盤 소반 반]하다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예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 ㄱ **기여**[寄 부칠 기 與 더불어 여]하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예 꾸준히 했던 연습이 우리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ㄷ

- ㄷ **달성**[達 통할 달 成 이룰 성]하다
목적한 것을 이루다.
예 한 주에 두 번은 달리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 ㄷ **당면**[當 마땅할 당 面 낮 면]하다
바로 눈앞에 당하다.
예 지금 당장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ㄷ **당위성**[當 마땅할 당 爲 할 위 性 성질 성]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성질
예 기미 독립 선언서는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가득하다.
- ㄷ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을 맞추어 배치하는 표현 방법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 : **대구법**
- 송순, <면앙정가>
- ㄷ **대비**[對 대답할 대 備 갖추 비]하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
예 태풍에 **대비**하여 담장을 튼튼하게 고정했다.
- ㄷ **대응**[對 대답할 대 應 응할 응]하다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예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 ㄷ **대책**[對 대답할 대 策 꾀 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예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 ㄷ **도달**[到 다다를 도 達 통할 달]하다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
예 버스, 기차를 갈아타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 ㄷ **도치법**
정상적인 문장 성분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마음의 매친 실음 텃텃(疊疊)이 싸혀 이서
짓나니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도치법
- 정철, <사미인곡>

ㅁ

- ㅁ **마련**하다
헤아려서 갖추다.
예 강렬한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창이 큰 모자를 **마련**하였다.
- ㅁ **마모**[磨 갈 마 耗 빌 모]
마찰 부분이 닳아서 없어짐.
예 이 제품은 내구성이 약해 **마모**가 심해서 오래 쓰지 못할 것 같다.
- ㅁ **면**[免 면할 면]하다
어떤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나다.
예 나는 퀴즈를 맞히어 그날 청소 당번을 **면**하게 되었다.
- ㅁ **밀접**[密 뽕뽕할 밀 接 접할 접]하다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예 글을 읽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ㅂ

- ㅂ **반어적 표현**
실제와 반대되는 뜻으로 나타내는 표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반어적 표현
- 김소월, <진달래꽃>
- ㅂ **반영**[反 돌이킬 반 映 비출 영]하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내다.
예 올 여름 가족 여행지는 내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하여 정해졌다.
- ㅂ **발휘**[發 발 揮 휘두를 휘]하다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내다.
예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
- ㅂ **방안**[方 모 방 案 책상 안]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01~03

출제 # 중심 내용

① 안녕하세요? ②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③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④ 최근 한 휴대폰 제조사에서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병풍의 특징을 적용한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통 공예품 중 병풍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병풍'을 발표 소재로 선택한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함.

*① 요약: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본 계기로 발표 화제를 '병풍'으로 선정함.

② '병풍'은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람을 막는 기능 외에 무엇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소품입니다. ③ (① 자료를 제시하며) 병풍은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풍을 펼쳐 공간을 분리하거나,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야외나 다른 공간으로 병풍을 옮겨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었을 때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② 요약: 펼치고 접을 수 있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

③ 병풍은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적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병풍에 그림을 넣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를 기원할 때는 십장생, 선비의 지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사군자를 그린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④ (①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꽃과 새를 화려하게 그려 넣어 장식함으로써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③ 요약: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징적 의미를 담은 병풍의 장식적 특징

④ (①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 이 병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② # 문자도 병풍을 보여 주는 자료 # 질문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함.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③ 이 병풍은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져 있는 '문자도 병풍'입니다. 문자도 병풍은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그린 병풍입니다. ④ 보시는 것처럼 '효'라는 한자와 다양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각 소재들은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잉어를 예로 들자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잡은 효자의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⑤ 이러한 문자도 병풍은 집안을 장식하고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④ 요약: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와 그림을 담은 '문자도 병풍'

⑤ 병풍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생활용품입니다. ⑥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병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아름다움도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⑦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⑤ 요약: 병풍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01

정답 ② *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정답률 90%]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해 정답 ?

②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발표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비하지 않음. '병풍'

②-②-④ ~ 병풍은 ~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야외나 다른 공간으로 병풍을 옮겨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었을 때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윗글은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며 발표 소재 '병풍'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병풍'을 다른 대상과 대비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해 오답 ?

① 발표 소재를 선택한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병풍'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봄.

①-④, ⑤ 최근 한 휴대폰 제조사에서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병풍의 특징을 적용한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통 공예품 중 병풍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③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십장생', '사군자', '꽃과 새', '잉어'와 관련된 설화

③-⑤, ④ 장수를 기원할 때는 십장생, 선비의 지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사군자를 그린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④-⑥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잉어를 예로 들자면,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과 대답을 확인하고 발표를 이어감.

①-②, ③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④-①, ② ~ 여러분, 이 병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기를 당부함.

⑤-②-④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1~12 * 한글 맞춤법의 원칙과 표기법

출제

①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② 이런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③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④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⑤ 예를 들어 체인과 조사가 결합한 '있이', '있만'을 발음대로 적으면 '이피', '임만'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적힌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있'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⑥ 따라서 형태를 '있'으로 고정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⑦ 그리고 '먹어', 소리나는 대로 '이피', '임만'으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있이', '있만'으로 적음. '먹는'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는다. ⑧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⑨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 파생어 합성 용언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 ① 문단 요약: 한글 맞춤법의 원칙

②

(가)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마감 시간을 확인했다. ※ 웃음: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웃-+ -음. (어근) (접미사) 막-+ -임. (어근) (접미사) 소리대로 적음.

(나) 방에 들어간 그는 사라진 의자를 발견했다.

들어가다: 들다+가다. 사라지다: 살다+지다

① (가)에서 '웃음(웃-+ -음)'은 접미사 '-음/-ㅁ'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② 이와 달리 '마감(막-+ -임)'은 접미사 '-임'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나)에서 '들어간'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이유.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이유. 앞말인 '들어'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지만, '사라진'은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었다.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이유

* ② 문단 요약: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

③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④ 예를 들어 '지'는 어미 '-(으)ㄴ 지, -(으)ㄹ 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지만, '지'를 띄어 쓰는 경우. '지'를 띄어 쓰는 경우. [A]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번'이라고 쓰지만, '한'이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처럼 띄어 쓴다. '한'과 '번'을 띄어 쓰는 경우

* ③ 문단 요약: 올바른 띄어쓰기의 중요성

■ 이것이 핵심!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① 문단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본모양의 형태를 밝혀 적음.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의 표기	
② 문단	①
	어근 + 접미사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는 접미사인 경우 -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 경우 예 웃음(웃-+ -음) 소리대로 적음.
③ 문단	②
	용언 + 용언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 예 들어간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예 사라진

2023. 9

7회

11 정답 ⑤ * 한글 맞춤법 파악하기 [정답률 73%]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풀이 ㉠ 쓰러진 사이로 ㉡ 작은 꽃이 ㉢ 마중을 나왔다.	쓰러지다: 쓸다+지다 작-+ -은 맞-+ -음
• ㉣ 풀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 믿음을 잃지 않았다.	끝+이 믿-+ -음

단어	형태소 분석	한글 맞춤법 적용	적용 이유
㉠	쓸-+ -어-+ 지-+ -ㄴ 어간 연결 어미 어간 관형사형 전성 어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	앞말 '쓸다'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음.
㉡	작-+ -은 어간 어미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음.
㉢	맞-+ -음 (어근) (접미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	접사 '-음'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함.
㉣	끝+이 (명사) (조사)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고치'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적었을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려움.
㉤	믿-+ -음 (어근) (접미사)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접사 '-(으)ㅁ'이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 후에도 어근 '믿-'의 본래 뜻이 유지됨.

오해 정답?

⑤ ㉢: 어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후에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아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마중'이 아닌 '믿음'으로 적음.

* 근거: ② 문단 ① 문장

㉢ '믿음'은 어근 '믿-'에 접사 '-음'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접사 '-음'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 '믿-'의 본래 뜻이 유지된다. 따라서 '믿-+ -음'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믿음'으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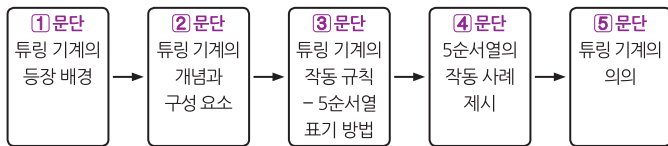
오해 오답?

① ㉠: 앞말이 '쓸다'라는 본뜻에서 멀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쓸다'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음. '쓰러진'으로 적음.

* 근거: ② 문단 ③ 문장

㉠ '쓰러진'의 기본형 '쓰러지다'는 용언 '쓸다'와 '지다'가 결합한 말이다. 앞말인 '쓸다'가 본뜻에서 멀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쓸-+ -어-+ 지-+ -ㄴ'은 소리대로 '쓰러진'으로 적는다.

④ 문단	무한히 반복되는 5순서열의 작동 사례 제시 5순서열의 모임 (A, □, P0, R, B) ; (B, □, P1, R, A)가 하나의 테이프에서 작동하는 상황 -(A, □, P0, R, B): 현재 상태가 A이고, 시작 위치가 빈칸임. → 0을 기록함. →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함. → 상태를 B로 변경함. -(B, □, P1, R, A): 현재 상태가 B이고, 시작 위치가 빈칸임. → 1을 기록함. →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함. → 상태를 A로 변경함.
⑤ 문단	튜링 기계의 의의 - 5순서열을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음. - 보편 튜링 기계: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음. → 현대 컴퓨터 발명의 기본적인 착상 제공



■ 주제: 튜링 기계의 작동 원리와 의의

25 정답 ⑤ * 내용 파악하기 [정답률 8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오해 정답 ?

⑤ 보편 튜링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는 무엇인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5문단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하여 처리한다는 보편 튜링 기계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 튜링 기계가 처리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해 오답 ?

①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차 논리의 논리식이 타당인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됨.

① 문단 ①, ② 문장 수학자 힐베르트는 어떤 1차 논리의 논리식이 주어졌을 경우 이 논리식이 타당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 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② 튜링 기계의 작동규칙을 표시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5순서열

③ 문단 ① 문장 ~ 작동규칙은 예를 들면 (A, 1, P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을 '5순서열'이라고 한다.

③ 보편 튜링 기계와 현대 컴퓨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함.

⑤ 문단 ②, ③ 문장 ~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컴퓨터 역시, ~ 복잡한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④ 튜링 기계가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작동규칙,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헤드의 시작 위치

③ 문단 ① 문장 튜링 기계는 작동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 작동되는데, ~

④ 문단 ② 문장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그리고 테이프에서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면 주어진 5순서열의 모임 중 수행 가능한 5순서열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26 정답 ① * 내용 파악 + 추론하기

★ 1등급 대비

[① 45% ② 11% ③ 16% ④ 17% ⑤ 9%]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테이프', ㉡ '헤드', ㉢ '상태 기록기'

☞ 오해 틀렸나 ?

㉠~㉣의 특징과 역할을 윗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이 제시된 2문단의 내용과 함께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과 작동 사례를 설명한 3, 4문단의 내용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 오해 정답 ?

① ㉠의 길이를 무한으로 가정한 것은 튜링 기계가 가상의 장치라는 '테이프' 길이가 무한한 테이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것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① 문단 ② 문장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 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② 문단 ② 문장 테이프는 좌우 양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 테이프의 길이가 무한히 길어지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함.

☞ 오해 오답 ?

② ㉡이 한 번에 판독할 수 있는 기호의 개수는 항상 동일하게 기호를 판독하는 것은 ㉡ '헤드의 역할임'.
유지되었군.

② 문단 ③, ④ 문장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를 읽거나 기호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③ ㉠의 시작 모습은 ㉡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에 따라 결정되었군.
'테이프' '헤드' 무관함.

② 문단 ② 문장 테이프는 ~ 각 칸은 비어 있거나 한 개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다.
④ 문단 ② 문장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 정해지면 ~

㉠ '테이프'의 시작 모습은 튜링 기계가 작동하기 전 각 칸에 기호가 기록되어 있거나 비어있는 테이프의 모습을 말한다. 이는 튜링 기계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것이며, ㉡ '헤드'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인 L, R, N과는 무관하다.

④ ㉡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이 나타내는 튜링 기계의 상태와 관련이 있겠군.
'헤드' '상태 기록기' 무관함.

* 근거: ④ 문단 ② 문장

㉡ '헤드'의 시작 위치는 ㉢ '상태 기록기'가 나타내는 튜링 기계의 상태와 상관없이 정해진다.

매력

오답

윗글에서 ㉡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린 학생들이 많았다.

㉢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5순서열의 첫 번째 자리)를 기록할 뿐, ㉡ '헤드'의 시작 위치와는 관련이 없다.

⑤ ㉢에 임의의 기호가 사용된다는 것은 ㉠에 기록된 기호의 종류가 항상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상태 기록기' '테이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튜링 기계의 상태는 임의의 기호로 나타낸다. 따라서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임의의 기호는 ㉠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와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는 달라질 수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2022. 11
10회

(가) 권섭, <십육영(十六詠)>

출제 ① 화자, 중심 대상 ② 상황, 정서, 태도 ③ 표현상 특징

③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① 시련, 고난 ① 중심 대상: 소나무 * 영탄적 어조: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어조
 구령에 서 있는 나무 우뚝하기도 하구나
 ② 시련, 고난 # ① 태도 -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홀로 지조를 지키는 소나무를 예찬함.
 풍상(風霜)을 실컷 겪고 독야청청(獨也靑靑)하구나
 ③ 잠시 바람과 서리를 겪고도 홀로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의 모습
 저근덧 베지 말고 두면 동량재(棟梁材)* 되겠구나
 # 소나무를 베지 말고 두면 나라의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음.

<제1수(소나무[松])>

구령: 움쭉하게 파인 땅 풍상: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독야청청: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1수> 요약: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조를 지키는 소나무

①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氣焰)*도 황홀하구나
 ② # ② 태도: 위엄과 대단한 기세를 가진 호랑이를 예찬함.
 이 외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나니
 ③ 중심 대상: 호랑이
 진실로 네 잠깐 떠나면 호리종횡(狐狸縱橫)*하겠구나
 # ② 정서: 호랑이가 사라지면 혼란해질 현실에 대해 우려함.

<제11수(호랑이[虎])>

* <제11수> 요약: 대단한 기세를 가진 호랑이에 대한 예찬

① 중심 대상: 말 ③ 대조법을 활용하여 중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함.
 ① 오리마 적표마*들이 판단 노태*와 같겠느냐
 ② # ③ 설의법을 활용하여 오리마와 적표마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냄.
 바람에 슬피 울며 네 굽을 허위치니 *대조법: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③ 허위적거리니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사법
 아무리 천리지(千里志)* 있을 줄 알 이 없어 서러워라
 # ② 정서: 뛰어난 인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서러워함.

<제15수(말[馬])>

* <제15수> 요약: 오리마 적표마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서러움

- * 동량재: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 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이르기에도 함.
- * 기염: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 * 호리종횡: 여우와 살쾡이가 이리저리 날뛰. 여우와 살쾡이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함.
- * 오리마 적표마: 오리마는 온몸의 털이 검은 말, 적표마는 붉은색을 가진 명마
- * 판단 노태: 판단과 노태로 모두 걸음이 느린 말을 의미함.
- * 천리지: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

★ (가) 독해 공식

- ① 화자: 드러나지 않음. 중심 대상: '나무(소나무)', '네(호랑이)', '오리마 적표마(말)'
- ② 상황:
 - <제1수>: 바람과 서리를 겪고도 푸르른 소나무를 보고 지조와 절개의 가치를 발견함.
 - <제11수>: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질서를 깨달음.
 - <제15수>: 말을 보고 뛰어난 존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발견함.
- 정서:
 -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홀로 지조를 지키는 소나무를 예찬함.
 - 위엄과 대단한 기세를 가진 호랑이를 예찬함.
 - 호랑이가 사라지면 혼란해질 현실에 대해 우려함.
 - 뛰어난 인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서러워함.
- 태도: 소나무와 호랑이에 대한 예찬적 태도
- ③ 표현상 특징
 - 특정 소재의 속성을 통해서 주제 의식을 부각함.
 -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대조법과 설의법을 사용하여 중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함.

■ 갈래: 연시조

■ 글쓴이: 권섭(1671~1759). 조선 후기의 시인. 주변 인물들이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는 참극을 겪은 뒤, 관직보다는 문학 쪽을 택하여 일생을 여행과 문필 활동으로 보내며 작품을 남겼다. <영삼별곡>, <황강구곡가> 10수를 비롯하여 3천여 편이 넘는 한시, 가사를 남겼다.

■ 제목의 의미: '열 십(十) + 여섯 육(六) + 시가 영(詠)'. '열여섯 가지 대상에 대한 시가'라는 의미이다. <십육영(十六詠)>은 글쓴이가 열여섯 가지 대상(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산, 시내, 강, 바다, 신선, 용, 범, 학, 사람, 잉어, 말, 매)에서 발견한 삶의 자세와 이치를 읊은 작품임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자연물에서 발견한 삶의 자세와 이치

■ 이것이 핵심!: 중심 대상을 보고 떠오른 화자의 정서

중심 대상	화자의 정서
소나무	지조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예찬함.
호랑이	위엄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예찬하고, 호랑이와 같은 인재가 사라지고 여우·살쾡이와 같은 간신배가 날뛰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드러냄.
말	오리마 적표마와 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말을 보며 능력 있는 인재가 있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현실을 아쉬워함.

(나) 조우인, <출새곡(出塞曲)>

출제 ① 화자, 중심 대상 ② 상황, 정서, 태도 ③ 표현상 특징

① # ① ② 상황 - 화자가 북방의 경성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게 됨. ③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이 문호인데
 ② 북쪽 지방 이십여 주 중 경성이 관문인데
 군사 백성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시니]
 ③ 화자
 망극한 임금의 은혜 갚을 길이 어렵구나
 ④ # ② 정서: 벼슬을 내린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⑤ 서생의 일은 글쓰기인가 여겼더니
 ⑥ 붉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⑦ 자신이 변방의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음.
 임금께 절하고 칼을 쥔고 돌아서니
 ⑧ 만 리 밖 국경에 내 한 몸 다 있었다
 ⑨ 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①~⑦행 요약: 북방의 관리로 부임하게 되어 길을 떠나게 된 '나'

⑧ 홍인문 내달아 녹양평에 말 갈아타고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⑨ # ② 상황 - 화자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정을 떠남.
 은하수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이니
 ⑩ 회양 옛 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⑪ ③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냄.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⑫ ② 정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와 탄탄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던 말 전혀 마오 # [A]: 자연을 보며 삶의 고단함을 떠올림.
 ⑬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⑭ # ③ 철령을 평지에 비유하여 세상살이의 힘들음을 부각함.
 눈물을 겨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⑮ 임금에 있는 공간
 서울이 어디요 대궐이 가렸도다
 ⑯ 정서: 임금에게서 멀어지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낌.

* ⑧~⑮행 요약: 북방으로 떠나면서 슬픔과 아쉬움을 느끼는 '나'

⑮ 한번 북쪽은 저쯤에 오랑캐 땅인데
 ⑯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 리 밖 몰아내니
 ⑰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 초목이 다 알도다
 ⑱ 용흥강 건너와 정평부 잠깐 지나
 ⑳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㉑ # ② 상황 - 화자가 낙민루에 올라 함경도 일대를 살펴봄.
 옥저*의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㉒ 천년의 풍패*에 상서로운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 ② 태도: 함경도 일대에서 느껴지는 상서로운 기운에 감탄함.

* ⑮~㉒행 요약: 낙민루에 올라 함경도 일대를 살펴보는 '나'

⑤ ㉓, ㉔, ㉕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겠군.

④ 문단 ㉓ 문장 ~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윗글에 따르면 주파수 값 분포표에 분포한 주파수 값들은,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㉓, ㉔, ㉕ 영역의 비율은 원본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8 정답 ① *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률 90%]

문맥상 ㉑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말한다’ - ‘어떤 가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인다.’의 의미임.

>오해 정답 ?

① 북극은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을 말한다.

‘어떤 가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인다.’의 의미임.

>오해 오답 ?

② 선생님은 그 작가에 대해 항상 좋게 말했다.

‘평하거나 논하다.’의 의미임.

③ 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생각이나 그림 따위를 말로 나타낸다.’의 의미임.

④ 친구에게 동생이 오면 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무엇을 부탁하다.’의 의미임.

④의 ‘말하다’는 ‘무엇을 부탁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그녀에게 약속 장소를 말하지 않은 것이 생각한다.

‘어떠한 사실을 말로 알려주다.’의 의미임.

39~42 * 작자 미상, <정각록>

출제 ① 중심인물, 배경 ② 중심 사건, 갈등 ③ 서술상 특징

△: 천자를 배신하고 ‘양운’의 편에 서는 인물

① 중심인물

① 신봉장 원이정이 내달아 양주 자사 양운을 맞아 싸우다가 사로잡힌 바 되니, 또 도원수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체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② 황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경황실색하며 이렇게 물었다.

③ “하신(下臣) 중 누가 대적하리요?”

*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끼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서술 방법

④ 좌우의 모두가 일제히 아뢰었다.

⑤ “이제 형세가 곤궁하오니 마땅히 항복하기만 같이 못하옵나.”

신하들이 황제에게 항복을 권유함.

⑥ 천자가 크게 분하여 대답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기를,

⑦ ① 중심인물 (= 황제)

“누가 능히 용적을 소멸하고 짐의 분을 덜겠는가?”

⑧ 그러나 하신의 모든 무리가 거의 다 양경의 세력에 들었는지라

서술자가 개입하여 장면에 대한 주관적 논평을 내림.

누가 대적하겠는가? ⑨ 급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⑩ ① 공간적 배경

태자비가 이 시랑 태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① 중심인물

국가 소식을 탐지하였는데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길을 막고 울었다.

⑪ 태자비가 소애를 시켜 위로하며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이 말하기를,

⑫ [A] ① 인물의 말을 통해 상황을 요약적으로 전달함.

“양경의 동족(同族)인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도읍이

[A] ② 중심 사건 - 양경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고, 천자가 위기에 처함.

다 반역하여 조정을 침노하였는데, 천자께서 몸소 공격하시다가

“양경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남.”

도적에게 패하여 거의 죽게 되셨으니 백성이 당하지 못하여 피난하나이다.”

⑬ 반역으로 인해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함.

태자비가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⑭ “전쟁터에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고 양경 같은 소인이 있어

백성을 다 없애지게 하고 임금을 해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⑮ 설의적 표현을 통해 태자비의 분함과 한스러움을 드러냄.

황상이 이제 친행(親行)하신다 하니 그 용적의 세력을 어찌 당하리오.

황제가 이제 몸소 실행하신다고 하니 → 황제가 몸소 공격하고 있는 상황

내 비록 여자이나 한번 소리쳐 역적을 깨뜨리고 백성을 건지며

태자비의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남.

임금을 구원하리라.”

* 설의적 표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 ① 요약: 양경의 반란으로 위함에 빠진 조정을 구하기로 결심한 태자비

(중략)

② 태자비가 분기충천하여 천조검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③ “너희는 어떤 도적이기에 성질이 역세게 고집스럽고 사납기가

그지없어 우리 황상을 이리도 꺾박하는가? 나는 성제(聖帝)의 명을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 ‘천자’를 가리킴.

받아 주 씨 강산을 구하러 왔으니 나를 대적할 이 있거든 모두 나와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 → 주 씨 = 천자의 가문 = 황실

승부를 겨루자.”

④ 태자비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남.

하는 소리 진동하니 양주 자사 양운이 소리에 응답하여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⑤ “이제 주 씨의 부조(父祖)가 덕망을 잃어 천하 백성이 도탄에 들어

지금의 황실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다고 주장함 → 반역을 일으킨 이유

눈을 뜨지 못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주 씨를 들어 내쳐서 만민을

반역을 일으킨 행위를 정당화함.

건지고자 하나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절 돌아감을 알지

[A]: ‘양운’이 자신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를 말하며 반역을 정당화함.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⑥ 태자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⑦ “자고로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주씨의 녹을

양운이 신하로서 감추어야 할 태도를 감추지 못했음을 꾸짖음.

먹었으나 임금의 은혜를 갚지는커녕 도리어 이리 하느냐. 옥체를

[B] 빌린 임금의 마음은 하해와 같으니 어찌 하늘의 벌이 없겠는가? 급히

[B]: ‘태자비’가 신하가 지켜야 할 태도를 내세우며 ‘양운’을 비판함.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리니 급히 결단하라.”

⑦ 양운이 노하여 달려들거늘, 태자비가 맞아 싸워 두 합에 태자비의
 [1] ② 갈등: 반역 세력(양운, 황주 자사)과 태자비의 전쟁(외적 갈등)
 칼이 번뜩하더니 양주 자사 양운의 머리를 베어 칼 끝에 꿰어 들고
 태자비가 양운을 죽임 → 태자비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남
 재주를 자랑하며 쳐들어갔다. ⑧ 적진에서 양운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내닫거늘,

⑨ 태자비가 바라보니 신장이 구 척이고 얼굴은 수목을 갈아 뿌린 듯하고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냄.
 눈은 커서 세 치 닛 뿐이나 되었다. ⑩ 장검이 엄숙하여 청천(靑天)의 번개
 같으니 이는 황주 자사였다.]

⑪ 태자비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⑫ 이런 도적이 시정에 있으니 무엇에 쓸 수 있겠는가? 너와 더불어
 대적함이 욕되나 위국충신이 있는 고로 마지못해 다투니 급히 결단하라.”
 ⑬ 황주 자사가 크게 노하여 달려들어 태자비와 싸우기를 20여 합이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⑭ 이때에 천자가 대상(臺上)에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장군이
 = 태자비
 필마(匹馬)로 들어와 적장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⑮ 이를 보고 의아한
 중에 안심되어 말씀하시기를,

⑯ 밝으신 하늘이 주 씨 강산을 보전케 하시도다.”
 ⑰ 이어 기뻐하며 일월기(日月旗)를 돌려 접응하였다.

⑱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우기를 30여 합에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장수가 입던 긴 옷을 용의 머리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전포(戰袍)에서 용두(龍頭)에서 청황룡이 었드려
 # [1] ③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함.
 있다가 붉은 기운을 토하니, 삼태호종마가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⑲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더니 칼을 들어 황주 자사의 목을 베어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오. ⑳ 태자비가 드디어 모든 역적을
 함몰시키고 군사는 놓아 보내니, 적진에 잡혀있던 양경과 원이정의
 몸이 살아와서 태자비를 보고 칭송하며 말하기를,

㉑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와 선봉장이나 재주가 없어 적진에 잡혀
 [1] 반역을 꾀했던 것을 숨기고 아첨함으로써 목숨을 보전하고자 함.
 죽게 되었더니 장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전하고 흉적을
 격파하였으니 은혜 난망(難忘)이로소이다.”]

㉒ 태자비가 한 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㉓ “정말 몰랐습니다.”

㉔ # “양경과 원이정의 말을 믿는 척함.”
 그리고는 양경을 데리고 천자 계신 곳에 가서 육도 자사의 머리를
 올리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시며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었다.

㉕ “장군의 충성은 무엇보다도 크니 금수강산으로도 갚지 못하리라.”

㉖ 태자비가 었드려 아뢰었다.

㉗ 폐하의 홍복(洪福)이라,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㉘ 천자가 매우 칭찬하자, 태자비가 다시 여쭙어 아뢰었다.

㉙ 이제 육도 자사가 죽고 자리가 비었으니 었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여섯 자사를 정하여 각각 모든 병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㉚ 이에 천자가 이를 따랐다.

㉛ 이어 태자비가 천자를 모시고 황성에 올라왔는데, 남쪽 성문 위에
 천자가 전좌한 뒤, 태자비가 황상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㉜ “또한 성 안에 육도 자사의 남은 무리가 무수하오니 다시 성에
 자기 나라를 배반한 역적 = ‘양경’, ‘원이정’
 들어가 반적(叛賊)을 다 없앤 후 환궁하겠습니다.”

㉝ # 남아있는 역적의 무리를 모두 없앤 후 돌아오겠다고 함.
 천자가 크게 놀라 그대로 윤허하시니, 태자비가 즉시 차환 등을
 호령하여, 양경과 원이정을 잡아들이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 ② 요약: 반군을 진압한 태자비의 비범한 능력

독해 공식

- ① 중심인물: 양운, 양경, 천자, 태자비, 배경: 이 시랑 덕, 천자 계신 곳
- ② 중심 사건: ‘양경’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고, 천자가 위기에 처함. ‘태자비’가 역적을 모두 무찌름. ‘태자비’가 성 안에 남아 있는 역적 무리를 잡아들임.
 갈등: 반역 세력(양운, 황주 자사)과 태자비의 전쟁(외적 갈등)
- ③ 서술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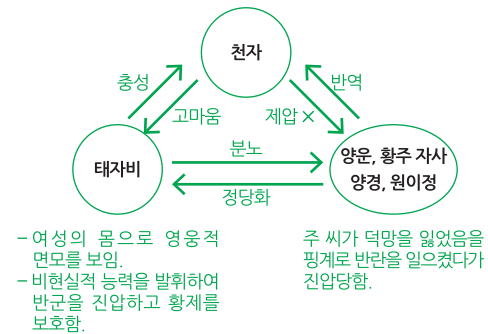
- 서술자: 3인칭 서술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서술자가 개입하여 장면에 대한 주관적 논평을 내림.
- 인물의 말을 통해 상황을 요약적으로 전달함.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냄.
-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함.

■ 갈래: 고전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

■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여성을 영웅적 인물로 설정하여 인물의 뛰어난 능력과 유교 이념을 구현한 글이다. 주인공 ‘태자비’는 반역을 일으킨 인물들을 숙청하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적 인물로,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념인 충을 구현한다.

■ 주제: 태자비의 뛰어난 능력과 영웅적 활약

■ 이것이 핵심!: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

정옥은 양귀비의 오빠 양경이 자신의 딸 정 소저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자 죽었다고 속이고 다른 곳에 숨긴다. 태자비를 잃은 태자는 옆집에 숨은 정 소저를 보게 되고 첫눈에 반한다. 태자는 여장을 하고 관음사에 발음하러 간 정 소저를 따라가서 만나고, 태자와 정 소저는 서로 친해진다. 이후 태자의 정체가 밝혀지고 태자와 정 소저는 부부가 된다.

정 소저는 양귀비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게 되지만, 충신 강문창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남장을 한 채 떠난다. 정 소저는 아버지의 죽마고우 이원중을 만나 도움을 받고, 이원중을 따라가 함께 지낸다. 이원중은 정 소저가 여자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해달라고 정 소저에게 청하고, 정 소저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때 양경의 측근인 육도의 자사들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다. 황제는 양경을 도원수로, 양경의 처조가 원이정을 선봉장으로 삼아 반적 토벌에 나선다. 양경과 원이정은 거짓으로 항복하고, 황제는 위기에 처한다. 이때 정 소저가 조정의 위험을 알게 되고 황제를 구하고자 반적 토벌에 나선다. 양 소저는 역적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

양 소저는 아버지 정옥과 장인 이원중을 모셔오고, 이들은 모두 높은 벼슬을 제수받는다. 정 소저는 남편인 태자와 재회하고, 아내인 이 씨를 황실로 데려온다. 이들 셋은 부부가 되어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 ([1] : 지문 수록 부분)

39 정답 ③ *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률 7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해 정답 ?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것

- ③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태자비가 도술을 부려 적을 무찌름.

②-⑬, ⑭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우기를 30여 합에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전포(戰袍)의 용두(龍頭)에서 청황룡이 었드려 있다가 붉은 기운을 토하니, 삼태호총마가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더니 칼을 들어 황주 자사의 목을 베어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오.

윗글의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우던 중에 태자비가 입은 전포의 용두에서 청황룡이 나와 붉은 기운을 토하는 것, 삼태호총마가 귀를 세우자 안개가 자욱해지는 것,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는 것에서 전기적 요소가 활용되었다.
윗글은 이러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며 태자비의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오해 오답 ?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끼어들어

무수광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고

- 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하지 않음.

①-⑧, ⑨ 그러나 하신의 모든 무리가 거의 다 양경의 세력에 들었는지라 누가 대적하겠는가? 급함의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장면에 대한 주관적 논평을 내림
②-⑬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더니 칼을 들어 황주 자사의 목을 베어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오.
서술자가 개입하여 '태자비'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함.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흐르지 않게 구성하여

- ②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 ④ **공간을 환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안개가 자욱하다고 묘사함. 드러나지 않음.

②-⑬ ~ 삼태호총마가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울 때 삼태호총마가 귀를 세우자 안개가 자욱해졌으므로 전쟁터의 공간을 환상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인칭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함.

40 정답 ② *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6% ② 54% ③ 10% ④ 22% 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해 틀렸나 ?

선택지에서 묻는 내용이 윗글에 짧게 제시되어 있어 글에서 선택지에서 묻는 내용을 찾지 못해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윗글의 중요 사건을 파악하고, 각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과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오해 정답 ?

- ② **하신의 무리들은 전장의 형세를 이유로 천자의 항복을 권유했다.**
권유함.

①-③-⑤ “하신(下臣) 중 누가 대적하리요?” / 좌우의 모두가 일제히 아뢰었다. / “이제 형세가 곤궁하오니 마땅히 항복하기만 할지 못하옵나니.”

‘양운’의 반란에 대적할 하신이 누가 있는지 묻는 ‘천자’의 질문에 하신들은 형세가 곤궁하다는 것을 이유로 천자의 항복을 권유하고 있다.

>오해 오답 ?

- ① **도원수 양경은 적과 싸우는 척하다 일부러 적진에 잡혀갔다.**
실수로 사로잡히는 척함.

①-① ~ 도원수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척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 ③ **태자비는 이 시랑 댁에서 지내며 나라의 상황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함.

①-⑩ 태자비가 이 시랑 댁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하였는데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길을 막고 울었다.

- ④ **천자는 전장에 말을 타고 나타난 장군이 태자비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태자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아해함.

②-⑭, ⑮ 이때에 천자가 대상(臺上)에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장군이 필마(匹馬)로 들어와 적장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의아한 중에 안심되어 말씀하시기를, ~

천자는 황주 자사와 싸우는 ‘태자비’를 보고 ‘난데없는 장군이 말 한 필을 타고 홀로 들어와 적장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의아해한다. 즉 천자는 ‘장군’이 ‘태자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매력 오답

‘난데없는 장군’이 ‘태자비’임을 파악하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우는 장면이 제시되고 ‘이때에 천자가 대상(臺上)에서 바라보니’라고 한 장면에서 천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태자비’가 ‘황주 자사’와 싸우는 모습이고, ‘난데없는 장군’은 ‘태자비’를 가리킨다.

- ⑤ **태자비는 천자에게 반적을 없앤 후 환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 안에 남은 육도 자사의 무리를 다 없앤 후 환궁하겠다고 밝힘.

①-⑫ “양경의 동족(同族)인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도읍이 다 반역하여 조정을 침노하였는데, ~”
②-⑭ “또한 성 안에 육도 자사의 남은 무리가 무수하오니 다시 성에 들어가 반적(叛賊)을 다 없앤 후 환궁하겠습니다.”

‘태자비’는 ‘천자에게 ‘육도 자사의 남은 무리’, 즉 ‘반적’을 ‘다 없앤 후 환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때 ‘육도 자사의 남은 무리’는 반역을 일으킨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도읍’의 남은 세력을 의미한다.

41 정답 ⑤ *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정답률 7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해 정답 ?

- ⑤ **[A]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말하며, [B]는 상대가 지켜야 할 태도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백성을 구하고자 반역을 일으킴. 신하는 임금의 은혜를 갚아야 함.

②-④ “이제 주 씨의 부조(父祖)가 덕망을 잃어 천하 백성이 도탄에 들어 눈을 뜨지 못할을 차마 보지 못하여 주 씨를 들어 내쳐서 만민을 건지고자 하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절 돌아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②-⑥ “자고로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주씨의 녹을 먹었으나 임금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이리 하느냐.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은 하해와 같으니 어찌 하늘의 벌이 없겠는가?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리니 급히 결단하라.”

01 정답 ④ * 음운 변동 파악하기

〈보기〉의 ㉓, 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의 유형이 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밝히다[발키다] 묻히다[무치다] 색연필[생년필]

축약이 일어남 축약, 교체가 일어남 첨가, 교체가 일어남

위 단어들의 음운 변동을 살펴보면, '밝히다'와 '묻히다'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㉓)이다. 이때 '색연필'에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단어의 예시에는 (㉔)이/가 있다.

밝히다 → [발키다]
 $\begin{matrix} \text{ㄱ} + \text{ㅎ} \rightarrow \text{ㅋ} \\ \text{축약(거센소리되기)} \end{matrix}$

묻히다 → [무치다]
 $\begin{matrix} \text{ㄷ} + \text{ㅎ} \rightarrow \text{ㅌ} \\ \text{축약(거센소리되기)} \end{matrix}$

색연필 → [색년필]
 $\begin{matrix} \text{ㄴ} \text{첨가} \end{matrix}$

→ [무치다]
 $\begin{matrix} \text{ㅌ} \rightarrow \text{ㅊ} \\ \text{교체(구개음화)} \end{matrix}$

→ [생년필]
 $\begin{matrix} \text{ㄱ} \rightarrow \text{ㅇ} \\ \text{교체(비음화)} \end{matrix}$

오해 정답 ?

④ ㉓: 축약, ㉔: 밤옷[밤눈]
교체, 첨가가 일어남.

㉓: 축약

'밝히다[발키다]'는 '밝'의 종성 'ㄱ'이 '히'의 초성 'ㅎ'과 결합하여 [ㅋ]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일어나 [발키다]로 발음된다.

'묻히다[무치다]'는 '묻'의 종성 'ㄷ'이 '히'의 초성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일어나 [무치다]가 되었다. 그리고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ㅌㅣ] [ㄷ]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다]로 발음된다.

즉 '밝히다[발키다]'는 축약이 일어났고, '묻히다[무치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다. 따라서 ㉓에 들어갈 말은 **축약**이다.

㉔: 밤옷[밤눈]

'색연필[생년필]'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색'과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명사 '연필'이 만나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된다. 그리고 [ㄱ]과 [ㄴ]이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 [ㄱㄴ]이 [ㅇ]으로 교체되어 [생년필]로 발음된다.

'밤옷[밤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옷'의 'ㅈ'이 'ㄷ'으로 교체되어 [밤눈]이 된다.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밤'이 반모음 'ㅛ'에서 시작하는 명사 '눈'과 만나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밤눈]으로 발음된다.

즉 '색연필[생년필]'과 '밤옷[밤눈]'은 모두 교체,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말은 **밤옷[밤눈]**이다.

오해 오답 ?

① ㉓: 축약, ㉔: 물난리[물랄리]
적절함. 교체가 일어남.

㉓: 축약

㉓에는 '축약'이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다(㉔번 선택지 해설 참고).

㉔: 물난리[물랄리]

물난리 → [물란리] → [물랄리]
 $\begin{matrix} \text{ㄴ} + \text{ㄴ} \rightarrow \text{ㄴㄴ} \\ \text{교체(유음화)} \end{matrix}$ $\begin{matrix} \text{ㄴ} + \text{ㄹ} \rightarrow \text{ㄴㄹ} \\ \text{교체(유음화)} \end{matrix}$

'물난리[물랄리]'는 교체만 일어나므로 ㉔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② ㉓: 교체, ㉔: 숨이불[숨니불]
축약 첨가만 일어남.

㉓: 교체

㉓에는 '축약'이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㉔번 선택지 해설 참고).

㉔: 숨이불[숨니불]

숨이불 → [숨니불]
 $\begin{matrix} \text{ㄴ} \text{첨가} \end{matrix}$

'숨이불[숨니불]'은 첨가만 일어나므로 ㉔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㉓: 첨가, ㉔: 직행열차[지갱열차]
축약 축약, 첨가가 일어남.

㉓: 첨가

㉓에는 '축약'이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㉔번 선택지 해설 참고).

㉔: 직행열차[지갱열차]

직행열차 → [지갱열차] → [지갱열차]
 $\begin{matrix} \text{ㄱ} + \text{ㅎ} \rightarrow \text{ㅋ} \\ \text{축약} \end{matrix}$ $\begin{matrix} \text{ㄴ} \text{첨가} \end{matrix}$

'직행열차[지갱열차]'는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므로 ㉔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⑤ ㉓: 탈락, ㉔: 공엿[공넌]
축약 첨가, 교체가 일어남.

㉓: 탈락

㉓에는 '축약'이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㉔번 선택지 해설 참고).

㉔: 공엿[공넌]

공엿 → [공연] → [공넌]
 $\begin{matrix} \text{ㅅ} \rightarrow \text{ㄷ} \\ \text{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end{matrix}$ $\begin{matrix} \text{ㄴ} \text{첨가} \end{matrix}$

'공엿[공넌]'은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므로 ㉔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02 정답 ⑤ * 시간 표현 파악하기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며,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섬.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섬. 'ㄴ/는/ㄹ', 'ㄹ/은/ㄴ'과 같은 선어말 어미나 'ㄴ', 'ㄹ'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 ㄱ. **어제** 네가 물어봐서 **놀랐어**. 부사어
 $\begin{matrix} \text{놀라-}(어간) + \text{-았-}(선어말 어미) + \text{-어}(어말어미) \end{matrix}$
- ㄴ. 어머니께서 **모레**쯤 서울에 도착하시겠다. 관형사형 어미
 $\begin{matrix} \text{도착하-}(어간) + \text{-시-}(선어말 어미) + \text{-겠-}(선어말 어미) + \text{-다}(어말어미) \end{matrix}$
- ㄷ. 나는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었다. 관형사형 어미
 $\begin{matrix} \text{보여주-}(어간) + \text{-었-}(선어말 어미) + \text{-다}(어말어미) \end{matrix}$
- ㄹ. 나는 비가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다**. 관형사형 어미
 $\begin{matrix} \text{바라보-}(어간) + \text{-ㄴ-}(선어말 어미) + \text{-다}(어말어미) \end{matrix}$

오해 정답 ?

⑤ **ㄴ**과 **ㄹ**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하지 않음.

ㄹ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그러나 ㄱ은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ㄱ은 선어말 어미 'ㄹ'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오해 오답 ?

① **ㄹ**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현재 시제

ㄹ의 관형사형 어미 'ㄴ'과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ㄹ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② ㄱ과 ㄷ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과거 시제

ㄱ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 '어제'와 '놀랐어'에서 선어말 어미 '-았-'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ㄷ은 '준비한'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과 '보여주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ㄱ과 ㄷ 모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③ ㄱ과 ㄴ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어제' '모래'

ㄱ은 부사어 '어제'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ㄴ은 부사어 '모래'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ㄱ과 ㄴ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④ ㄱ~ㄷ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ㄱ: '-았-', ㄴ: '-겠-', ㄷ: '-었-', ㄹ: '-ㄴ-'

ㄱ은 '놀랐어'에서 선어말 어미 '-았-'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ㄴ은 '도착하시겠다'에는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ㄷ은 '보여주었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ㄹ은 '바라본다'에는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ㄱ~ㄷ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03 정답 ② * 사전 활용하기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음이의 관계

부르다¹ ① 불려[불러] 부르니[부르니]

다의어 동사: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을】

목적어를 요구함.

①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다의 관계 ㉠ 어머니가 아이를 손짓하여 부른다.

②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께서 영수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다² ② 불려[불러] 부르니[부르니]

다의어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①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든다.

다의 관계 ㉢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다.

②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

㉣ 임신한 지 다섯 달쯤 지나니 제법 배가 부르다.

>오해 정답 ?

② '부르다¹'과 '부르다²' 모두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형용사

동사

'부르다¹'의 품사 정보 ①을 통해 '부르다¹'이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부르다²'의 품사 정보 ②를 통해 '부르다²'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오해 오답 ?

① '부르다¹'과 '부르다²'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발음만 같고 의미는 다른 단어 관계

'부르다¹'과 '부르다²'는 소리가 같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어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의어이다.

③ '부르다¹ ㉠'의 예로 '그녀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였다.'를 추가할 수 있다.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그녀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에서 '부르는'은 '소리'로 '그녀'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였다'는 '부르다¹ ㉠'의 예로 적절하다.

④ '부르다¹'은 '부르다²'와 달리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을】

목적어를 필요로 함.

'부르다¹'의 문형 정보 【...을】을 통해 '부르다¹'이 주어 이외에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르다²'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부르다¹'과 '부르다²'은 '부르-'에 '-어'가 결합할 때 표기와 발음이 같다.

불러[불러]

'부르다¹'과 '부르다²'의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를 통해 어간 '부르-'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불러'로 활용되고, [불러]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정답 ② *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값을 주파수값 형태로 삽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어느 주파수값에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의 전 영역에 걸쳐 ㉠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의 의미임. 삽입된다.

>오해 정답 ?

② 다섯 후보의 지지율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의 의미임.

>오해 오답 ?

①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평평하게 고른다.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다.'의 의미임.

③ 그는 세차게 달린 후 가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의 의미임.

④ 나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적당한 단어를 골랐다.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임.

⑤ 사고 싶은 물건을 모두 고른 사람은 이쪽에다가 놓으세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임.